

【논 문】

## 지역사에서 민족사로

— 『滿洲發達史』(1915)와 『滿洲國史通論』(1940)를 통해 본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만주사 연구—\*

정 상 우\*\*

차례

- I. 서언
- II. ‘불가분’한 관계로 엮인 대륙의 세력들 - 1915년 『滿洲發達史』
- III. ‘만주민족’과 고유문화 - 1940년 『滿洲國史通論』
- IV. 끊임없던 ‘만주’와 일본의 관계
- V. 결어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를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의 만주사 연구, 특히 그의 초기 저작인 『滿洲發達史』(1915)와 마지막 저작인 『滿洲國史通論』(1940)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나바는 만몽불가분이라는 대전제 위에 만주사를 구상하였다. 이는 만주와 몽고의 일체화 또는 만주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몽고의 세력은 물론 만몽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특히 『滿洲發達史』에서는 만주사를 만주만이 아닌 만주-중국-몽고를 축으로 하는 몇 개 세력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면, 만주의 역사를 이러한 세력들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려 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새외민족들을 중국 왕조와는 별개인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17-기획연구(공동)-5).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상정하는 것이자 만주사는 이를 둘러싼 여러 민족들의 세력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띤다는 시각이기도 했다. 즉 연구의 초기 이나바에게 만주는 동북아시아의 여러 세력들이 교차하는 지역이었으며, 그 역사 역시 만주라는 지역의 역사로서 서술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만주국 건국 이후의 저술인 『滿洲國史通論』에서는 ‘만주민족’을 설정하여 만몽의 민족을 모두 하나로 아우르고 만주사를 ‘만주민족’의 변화에 따라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만주사를 지역사에서 민족사로 전환하여 서술하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나바는 만주와 몽고의 정치적 일체화를 특기하는 한편 ‘만주민족’의 기원을 숙신으로 소급하고 ‘만주민족’의 문자, 풍습을 강조하며 漢族·漢文化와 구별되는 ‘만주민족’만의 고유문화·國粹를 거듭 강조하였다. 이렇게 북방민족의 고유문화를 발견·강조한 것은, 그 의도와는 별개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이를 넘어서 만몽의 민족적·정치적 일체화를 강조하고 ‘만주민족’의 문화적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만주국의 역사적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자, ‘오족협화’를 주창하며 몽고와의 국경선에서 노몬한 전투가 한창이던 당시 일본 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이나바 이와키치, 『滿洲發達史』, 『滿洲國史通論』, 만몽불가분, 만주민족

## I. 서언

제국은 끊임없이 침략을 통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으며, 효과적인 침략과 지배를 위해 침략 지역의 지리, 자원, 풍토는 물론 관습, 유물, 역사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이때 제국이 구축하여 제도화된 다양한 분과 학문들, 이른바 ‘근대 학문’은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역사학은 제국에게는 낯선 식민지의 과거를 제국의 입장에서 그려냄으로서 식민지화의 원인을 식민지 내부에서 발견함은 물론 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서구를 열심히 추수하며 제국이 된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식민사학’ 혹은 ‘식민주의 역사학’이라 불리는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역사 연

구는 침략지의 역사를 정체와 혼란의 과정으로 그려내어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한국사학계는 이러한 식민주의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침략성’을 1960년대 이래 꾸준히 지적·폭로해 왔다.<sup>1)</sup>

한편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경우 근대화와 제국주의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학문·역사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이 대만을 거쳐 조선으로, 다시 대륙의 안쪽으로 침략하던 시기는 서구로부터 ‘근대 역사학’을 전수받으며 이를 일본 사회에 구축하고 확장시키던 때이기도 했다. 즉 일본인 연구자에 의한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과정은 일본의 ‘근대 역사학’의 형성·전개과정이기도 했다. 때문에 식민주의 역사학은 ‘침략성’과 더불어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 역시 띄고 있는 것이었다.<sup>2)</sup>

‘근대 역사학’은 ‘자민족(자국)’의 ‘발전’ 과정을 ‘실증’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된다. 바로 역사적으로 민족의 경계를 설정하여 자/타를 구분짓고, 자민족의 ‘발전’을 타민족의 ‘정체(혹은 퇴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 역사학’은 단순히 자민족의 역사서술에 머물지 않으며 자민족사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자민족(자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변 민족과 국가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대를 요구했다. 즉 근대 역사학은 ‘실증’을 통해 ‘발전/정체’라는 일원적 도식 속에 자민족을 중심으로 주변의 민족을 계서화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역사적 공간이 만들어진다. ‘동양’, ‘동양사’의 창출·성립이라고 이야기되는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성립·전

1) 李基白, 1961, 『緒論』, 『國史新論』, 泰成社; 金容燮, 1966, 『日本·韓國에 있어서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 이후 월간 『亞細亞』지에서는 1969년 3월 특집으로 식민사학을 다루었는데, 당시 洪以燮, 李龍範, 李基白, 金泳鎬 등은 식민사학을 ‘타율성론-만선사관’, ‘사대주의론’, ‘정체성론’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식민사학’의 침략성은 사관을 중심으로 정리되며 ‘일선동조론’, ‘당파성론’ 등이 추가되었다.

2) 이렇게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진행한 역사 연구의 침략성과 더불어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을 주목·지적한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이성시, 2011,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지주의: 그 극복을 위한 과제』, 『韓國古代史研究』61; 윤해동, 2015,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 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정상우, 2013a, 『식민지에서의 제국 일본의 역사 편찬 사업 - 조선·대만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60.

개 과정은 ‘실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외부를 타자화해 ‘동양’을 구획하고, 그 중심에 일본을 배치하는 것이었다.<sup>3)</sup>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조선을 넘어 만주로의 팽창에 매달렸으며, 이는 만주사 연구를 수반했다. 이미 지적되고 있듯이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가 러일전쟁 직후, 또 만주사변을 전후한 1930년대에 대거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침략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sup>4)</sup> 이는 물론 효율적인 침략을 위한 것이자 일본사의 타자로서 ‘동양’의 역사서술을 위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 과정이기도 했다. 근래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만선사’ 연구에 대해 그것이 내재한 침략성을 지적함과 더불어 새로운 논의들 역시 진행되어 왔다. 당시 ‘만선사’ 연구는 만주와 조선의 문화적 계통성과 유사성을 강조하며 중국 한족 문화와의 차별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식민사학’이라는 관념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학계의 ‘신청사’의 입론과 상통한다는 논의나, ‘만선사’는 침략성과 더불어 일본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사를 재구성하는 측면 역시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sup>5)</sup> 이러한 논의들은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역사 연구가 - 침략의 합리화라는 연구 의도와는 별개로 - 중국과 구별되는 동아시아의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발견과 연결될 수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무너뜨리고, 일본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재구성하며 ‘동양’을 구성해 나아가는 성격 역시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 
- 3) ‘나는 수년 동안 일본의 기원을 알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 왔다. 처음에는 일본과 연결된 조선의 역사를 연구했고, 그리고 나서 한국과 연결된 만주 지역 민족의 역사를, 그리고 차츰 그 바깥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는 일본 근대 역사학의 선구자이자 ‘동양사’의 창시자인 白鳥庫吉의 발언은 당시 일본 연구자들의 이러한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白鳥庫吉, 1905, 『言語學上より見たるアイヌ人種』, 『白鳥庫吉全集』2, 349쪽).
- 4)塚瀬進, 2011, 『戰前, 戰後におけるマンチュリア史研究の成果と問題點』, 『長野大學紀要』 32 - 3, 42 - 43쪽.
- 5) 홍성구, 2009, 『‘청사공정’의 ‘청조홍기사’ 서술방향』,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 한국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36 - 39쪽; 유장근, 2009, 『‘만청식민주의’를 둘러싼 중·외 학계의 논의』, 同上書, 228쪽; 정상우, 2013b, 『滿鮮史와 日本史의 위상 - 稻葉岩吉의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28.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볼 때 20세기 전반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만주가 20세기 이래 일본의 대륙침략의 주요 목표였으며, 또 이러한 이유로 그 역사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전반기에 줄기차게 이루어져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이 새롭게 ‘동양’이라는 것을 구성함에 있어 출발점이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만주사 연구는 한국학계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과의 관련성이 있는 ‘만선사’에 대해서는 ‘식민사관’의 하나로서, 또 근래 중국과의 역사분쟁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던 반면 20세기 전반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은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연구가 주로 한국사 또는 ‘동북공정’과 같은 현실의 문제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말해 준다.<sup>6)</sup>

이 논문은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의 만주사 논저를 통해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의 일단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나바는 가장 대표적인 만선사학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20세기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만주사 연구자였다. 자신이 직접 ‘支那問題에 자극을 받아 清朝史를 研鑽’<sup>7)</sup>하며 연구자로서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듯이, 1900년대 초반에서 그가 조선에 부임하기 이전인 1920년대 초까지의 20년간 이나바의 저작은 모두 만주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후 이나바는 조선사편수회에 부임했지만 그 기간에도 꾸준히 만주에 관한 글을 발표하며 만주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滿洲建國大學의 개교(1938)와 함께 교수로 부임하여 만주 지역의 유적 답사·강연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주사를 강의하며 말년을 보냈다. 즉 그의 연구 활동의 시작과 끝은 만주사였다.

6) 한국에서 만선사 연구는 1969년 李龍範의 연구(『韓國史의 他律性論 批判 - 所謂 滿鮮史觀의 克服을 위하여』, 『亞細亞』 3월호) 이후 제출되지 않다가 2000년대 들어 증가했다.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이 있다. 박찬홍,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한국사학보』 29; 정상우,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歷史教育』 116; 박찬홍, 2014,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7) 稻葉岩吉, 1937, 『予が滿鮮史研究課程』, 『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論叢』, 17쪽.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의 초년과 말년을 장식하는 만주에 대한 2종의 통사, 바로 1915년에 간행된 『滿洲發達史』와 1940년에 출판된 『滿洲國史通論』이다. 『滿洲發達史』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서술된 만주에 대한 최초의 통사로서 러일전쟁 이후 활발히 전개되었던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 붐을 종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 대한 최초의 통사였기 때문에 향후 만주사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단지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책은 수차례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즉 중국인들에게 『滿洲發達史』는 일본인들이 구상했던 만주사를 대변하는 서적이었으며, 중국인 연구자들에게 끼친 영향력 역시 상당했던 것이다. 한편 만주건국대 교수로서 이나바의 강의안을 기반으로 1940년에 발간된 책이 『滿洲國史通論』이다. 이 해는 이나바가 사망한 해로 이 책은 그의 마지막 저작이라는 점에서 이나바 개인에게 의미있는 저작이겠지만 이 책이 발간된 1940년은 당시 만주사 연구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전쟁을 치루며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던 1940년대 일본은 새로운 역사서술을 모색하며 ‘남양사’, ‘대동아사’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sup>8)</sup> 1940년에 출간된 『滿洲國史通論』은 만주사에 대한 논의의 변화만이 아니라 20세기 전반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의 최종 단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만주사에 대한 이 2종의 통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물론 만주사에 대한 이나바 개인의 시각과 서술의 변화 지점에 대한 검토이겠지만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 경향을 엿보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8) 중일전쟁 이후 일본 학계에서 새로운 역사 서술의 요구와 ‘대동아사’ 편찬에 대해서는 남상호, 2008, 『‘대동아전쟁’과 『대동아사개설』 편찬』, 『한일관계사연구』 31을 참고할 것.

## II. ‘불가분’한 관계로 엮인 대륙의 세력들 - 1915년 『滿洲發達史』

도쿄외국어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이나바는 국비 지원으로 중국에 유학하며 평생의 스승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을 만나 역사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나이토의 소개로 만철 산하 만선역사지리조사부(이하 ‘조사부’)에 들어간 것은 그가 역사가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1913년에 간행된 『滿洲歷史地理』(1, 2권)는 조사부가 거둔 첫 번째 성과였다. 책의 서문에서 조사부의 수장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歷史의 基礎는 地理에 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史的地理’의 고증이 이 책의 중심을 이룬다. 이를 위해 조사실에서는 사료가 풍부한 후대의 역사지리 관련 사항을 먼저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료가 부족한 上代로 소급해 올라가는 방침에 입각해 조사·연구를 진행했다.<sup>9)</sup> 여기서 이나바가 담당했던 것은 『明代遼東의 邊牆』, 『建州女眞의 原地及 遷住地』, 『清初의 疆域』, 『漢代의 滿洲』로, 주로 명청대 여진과 관련된 역사지리적 사항들 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내었지만 만철 내부의 상황변화로 인해 조사부가 도쿄제대로 옮겨 가면서 이나바는 조사부를 나오게 된다. 조사부를 나온 직후 그는 『淸朝全史』(1914)와 『滿洲發達史』(1915)라는 2종의 책을 저술하였다. 明代 만주 경략 및 청조의 발흥에서 宣統帝의 퇴위까지를 다루고 있는 『淸朝全史』는 淸에 대한 최초의 통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서적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이나바는 ‘淸朝’의 근거지인 滿洲에 대한 통사로서 『滿洲發達史』를 저술하였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목차만 보더라도 그 중심이 명대 이래 對 만주정책과 청조의 흥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사부에서의 조사·연구 경험은 이후 발간된 개인 저작에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 이나바의 이러한 저작은 상당한 파급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특

9)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滿洲歷史地理』 1, 6-7쪽.

히 『滿洲發達史』(이하 ‘發達史’)가 그러하다. 이 책이 발간되었을 당시 학계의 거목이자 중국·만주 문제의 최고 권위자로 우뚝 선 나이토는 직접 서문을 써주며 이나바의 학문적 성취를 상찬하며 이 책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를 보증해 주었다.<sup>10)</sup> 뿐만 아니라 『發達史』는 출간된 지 20년이 지나 증보되어 재간되었으며, 중국어로도 여러 차례 번역될 정도로 중국인 연구자들에게도 널리 읽혔다.<sup>11)</sup> 이러한 『發達史』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표 1> 『滿洲發達史』의 목차

제 1장	總說
제 2장	明代以前の滿洲 秦代の滿洲 / 漢人の植民地及び其の經過 / 遼東屬國の創置 / 初期の滿洲移住民族 / 慕容氏遼西に起る / 高句麗の興亡 / 渤海及び黑水靺鞨 / 契丹人及び其の建國 / 金國大に興る / 金國の衰亡及び元代の滿洲統治
제 3장	明代の滿洲經營 遼河流域に創設せられたる政廳 / 初期の兀良哈關係 / 初期の女真人關係 / 永樂帝の對女真策
제 4장	明代の遼東拓殖事業 東北防備の根本破壞せらる / 凹字形の邊牆 / 女真人防禦の東部邊牆 / 遼河套喪失の禍害 / 東邊展拓の要求
제 5장	女真貿易の經過 明人の國際貿易觀念 / 朝貢及び貢市 / 馬市 / 對女真策の經過併に其の總評
제 6장	清朝の勃興 女真人建國の經過 / 國號改稱問題 / 遼西の爭奪戰繼續す / 睿親王と史可法 / 康熙大帝の以漢制漢策
제 7장	滿洲朝鮮と日本との史的關係

10) 稻葉岩吉, 1915, 『序』, 『滿洲發達史』, 大阪屋號出版部, 1-2쪽. 여기서 나이토는 ‘이나바군의 책이 나와 내가 꼭 (만주의 역사에 대해) 별도로 저술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滿洲發達史』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11) 楊成能은 『滿洲發達史』를 번역하여 1935년 『東北開發史』(辛未編譯社)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으며, 만주국에서는 1940년 이 번역서를 『滿洲發達史』(萃文齋書店, 奉天)라는 이름으로 재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9년에도 『滿洲發達史』(清史資料 第2輯 - 開國史料2 第10冊(臺聯國風出版社))라는 이름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제 8장	滿洲交通大系の變遷 滿洲の道路と季節 / 遼西道及び其の變遷 / 山東遼東及び朝鮮との交通路 / 渤海國の5大交通路 / 東蒙古の諸道路 / 宋金の交通路 / 元代及び明代の交通路
제 9장	滿洲の封禁及び其の價値 明代の拓地荒廢す / 招民例の效果顯著ならず / 如何に帶地投誠を見る / 封禁政策の初期 / 柳條邊牆とは何ぞ / 封禁政策の3大因 / 長白山の定界 / 露國南下の防壁
제10장	滿洲封禁の危機到る 八旗の生計困惑す / 旗地典賣の禁行はれず / 封禁第2期の經過 / 旗人の滿洲移住問題 / 八旗屯田の成績擧らす
제11장	滿洲の開発實現す 乾隆の移民禁止令 / 蒙古王公流民を招く / 如何に漢人の拓殖力を見る / 金匪 / 滿人の特別保護權撤せらる / 朝鮮國境上の諸問題 / 呼蘭平野の招墾 / 開放されし滿洲
제12장	東蒙古問題

『發達史』가 만주에 대한 통사이지만 명청대의 만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명 이전의 만주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이는 비록 1개의 장이지만 책 전체의 1/5~1/6 가량을 차지하는 상당히 긴 부분으로, 1915년 당시 이나바로 대표되는 만주사 연구자들이 명, 청과 같은 특정 시기를 넘어 만주사의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發達史』는 만주에 대한 통사를 지향하면서도 만주와 일본의 관계(7장), 만주와 몽고·중국 간의 주요 교통로(8장) 등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경과를 집약하는 주제별 서술도 가미하였는데, 특히 8장은 과거 조사실에서의 경험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한편 『發達史』 이전에 만주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았다. 러일 전쟁 이후 만주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당시 학계 최고의 실력자였던 시라토리라는 짧은 논문을 통해 만주의 역사를 ‘만주민족의 역사’라며 ‘고구려 - 발해 - 여진 - 청’으로 계보화했다.<sup>12)</sup> 이는 ‘만주민족’의 역사

12) 白鳥庫吉, 1909, 『滿洲民族の過去』, 『東洋時報』 132.

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도 도저히 만주족으로 볼 수 없었던 거란과 몽고를 제외하고, 만주에서 발원해 거대 세력화했다고 보았던 왕조들을 엮은 형태이다. 그렇다면 이나바의 『發達史』도 이러한 구상에 의한 것이었을까?

『發達史』의 목차를 보면 ‘滿洲’ 외에도 ‘朝鮮’, ‘日本’, ‘東蒙古’ 등과 같은 지역의 명칭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그가 시라토리의 구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주의 역사를 사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만주에 대한 통사를 지향했음을 고려할 때, 이나바는 책의 제목을 ‘滿洲通史’ 혹은 - 그가 직전에 발간했던 『清朝全史』처럼 - ‘滿洲全史’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滿洲發達史』라는 서명으로 책을 출간할 때는 만주족의 역사나 단순한 통사가 아닌 ‘滿洲發達史’만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나바에 따르면 ‘滿洲發達史’라는 것은 ‘이름대로라면 아시아 한쪽 모서리의 역사이지만 그 내용에 따르면 支那, 滿洲, 蒙古, 朝鮮, 露西亞 및 우리 日本人과의 갈등의 일대 記錄’이다.<sup>13)</sup> 즉 ‘滿洲發達史’라는 용어에서 ‘만주’는 만주는 물론 중국, 몽고, 조선, 러시아를 통칭하는 것이었고, 그가 생각한 만주의 역사는 ‘만주’로 통칭한 대륙과 일본의 관계였으며, 이 관계는 ‘발달’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發達史』에서 만주 이외의 역사-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역사를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즉 『發達史』에서 중심은 만주이다. 하지만 이나바는 만주의 역사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만주발달사’를 위와 같이 정의한 이후 이나바는 ‘滿蒙은 不可分’이라고 선언했다.

내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滿洲蒙古不可分說이다. 蒙古에 우수한 부족이 일어나면 滿洲를 略取하고 반대로 滿洲에 雄強한 國家가 나타나면 蒙古를 併呑한다. 그런데 分量上 蒙古방면의 세력은 만주의 세력에 비하여 卓

13)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1-2쪽.

越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몽고와 만주 각각이 가지고 있는 地利와 部族의 內容에 관련한다. 몽고와 만주에 대략 역량이 필적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경우 쌍방의 接觸線은 奉天에서 長春 一線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支那人이 이전에 遼河 하류에 근소한 식민지를 획득하여 만주방면의 적국을 공격하였지만 결과는 內蒙古 부족에게 커다란 발전을 주었으며, 이후 북방 지나는 그들의 말발굽에 위임되는 失策을 연출했다. …지나인은 또 이전에 내몽고방면으로부터의 압박을 제거하기 위해 만주인과 약속했다. 몽고는 제거했지만 지나인은 만주인에 의해 한층 강압을 받은 실책도 있다. 지나인의 입장에서는 몽고에 만주의 세력이 더해지지 않는 것이 이로왔다.<sup>14)</sup>

‘불가분’이라고 표현된 만주와 몽고의 관계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압도할 정도로 강하다면 하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에 의해 저울질되고, 갈라지는 것이다. 즉 이나바가 만몽이 불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주와 몽고 및 양측의 균형자로서 중국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요하 유역이라는 만주의 일각만을 점유했지만 滿蒙의 경영을 계획했던 유일한 이들’로, 어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과 손을 잡고 견제하는 존재로서,<sup>15)</sup> 몽고-중국-만주는 마치 시소와 같은 모양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즉 ‘만몽불가분’이 의미하는 것은 만주와 몽고의 일체화이기도 하지만 만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몽고에서의 세력들은 물론 만주와 몽고에 대한 중국 태도를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가 『發達史』에서 말하는 ‘만주사’는 1차적으로 ‘몽고-중국-만주’의 삼자 관계 속에 위치한다고 하겠다.<sup>16)</sup> 뿐만 아니라 이나바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만주와 조선의 경계는 압록강과 장백산이 아닌 大同江에서 元山津을 잇는 선이었다며 滿蒙과 조선 역시 불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만주사

14)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4-5쪽.

15)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4쪽, 8-9쪽.

16) 한편 이나바가 이후에도 즐겨 사용하는 ‘불가분’이라는 표현은 일체화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같은 중간적 존재에 의해 조율되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견제하는 밀접한 관계라는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조선의 상황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sup>17)</sup> 이처럼 『發達史』에서 말하는 만주의 역사는 만주에 있던 이들만이 아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몽고, 지렛대로서 중국, 만몽과 역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명되는 것이다. 즉 이나바는 동북아시아를 크게 만주, 몽고, 중국 등과 같이 몇 개의 세력으로 나누고 이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만주사를 사고했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었기 때문에 『發達史』에 만주만이 아닌 몽고, 중국의 왕조들, 조선, 일본 등이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었다.

『發達史』의 시작 역시 두 세력 간의 관계 맺음이 장식한다. 漢人과 만주 부족(東胡族)의 접촉, 바로 전국시대 燕의 秦開가 東胡族을 시라무렌 북방으로 구축한 것이 그것이다.<sup>18)</sup> 이후 이나바는 明 이전의 만주를 ‘읍루-부여-고구려-발해-거란(遼)-금-元’으로, 이후는 明代의 만주, 清代의 만주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明 이전의 만주에 대해 이나바는 漢族이 아닌, 東胡族과 몽고에서 발원한 종족으로 만주를 장악했던 이들을 ‘塞外民族’이라하며, 이들 새외민족들과 중국 왕조들의 관계, 주로 중국 왕조의 지배력 약화에서 기인하는 새외민족들의 대두 과정을 중심으로 만주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는 漢族 대 새외민족이란 양자 관계만은 아니었다.

唐이 서쪽에서 거란의 강적인 돌궐을 격파하고, 동쪽에서 고구려를 정복했던 결과, 이 민족(거란)의 발전을 저지할 수 있는 하등의 것이 없었다. 역사의 경로로부터 말하자면 당은 거란을 위한 발전의 여지를 공급하였다.<sup>19)</sup>

위의 인용문은 거란의 강성에 대한 이나바의 설명이다. 이는-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 문제는 차치하고- 이나바가 단순히 당과 거란의 역학관계만이

17)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10-11쪽. 이러한 서술을 보면 그가 만몽과 조선이 ‘불가분’이라고 말할 때 조선은 대동강에서 원산을 잇는 선의 이북지역에 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8)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15-16쪽.

19)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140쪽.

아니라 거란을 둘 짝 서몽골(돌궐), 조선의 북방을 포괄하는 만주(고구려) 등의 세력들과의 관계, 바로 만몽불가분, 만몽과 조선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만주의 역사적 전개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만주의 역사를 몇 개 세력의 역학관계 속에서 사고하는 『發達史』의 서술 방식은 明代의 만주, 바로 永樂帝의 대외정책을 서술하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나바는 영락제의 즉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兀良哈 이용, 몽고 親征 과정에서의 여진인 이용, 여진인에 대한 蠶書의 지급과 建州衛, 海西衛 등의 설치 등을 서술하며, 영락제가 부심했던 것은 만주의 여진인이 몽고인과 결합하는 것과 여진인들의 결집이었다고 보았다.<sup>20)</sup> 즉 영락제가 明 왕조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 만주정책의 성공, 바로 만몽결합과 여진인의 결집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나바에 따르면 영락제가 우려했던 상황들은 영락제 사후 바로 연출되었다. ‘北虜(몽고)는 오이라트의 君長이 통할하였고, 동몽고에서도 만주에서도 이들의 號令을 듣지 않을 수 없었’으며, 몽고 정벌에 종군한 여진인들에게 지급했던 蠶書의 검병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sup>21)</sup> 즉 15세기 중엽이 되면 이미 몽고와 만주에 대한 중국 왕조(明)의 지배력은 현격히 약해졌으며, 몽고와 만주의 민족은 독자적인 정치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나바의 생각이었다. 물론 청 건국의 씨앗 역시 이때 이미 뿌려진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륙 여러 세력들의 ‘불가분’의 관계와 더불어 이나바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외민족들의 漢人·漢文化 수용이었다. 특히 이나바는 이에 대한 거란의 방식을 중요시했다. 물론 고구려, 발해 등도 중국 문화를 섭취하며 발전을 이루었지만 거란은 과거와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南面’(漢人の 州縣, 租稅나 兵役 등을 담당)과 ‘北面’(거란인을 비롯한 그 屬國의 정치를 담당)이라는 ‘2대 政廳’이다. ‘國制로 거란인을 理하고, 漢制로

20)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205 - 222쪽.

21)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345 - 360쪽.

漢人을 待한다는 根本義'에 기반한 정치행정조직의 구축과 더불어 이나바가 주목한 것은 중국을 공격할 당시 漢人을 적극 이용해 그들을 앞세운 것이다. 이와 같은 漢人利用은 과거 새외민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거란의 재력, 병력,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새외민족들에게는 좋은 모범이 되어, 여진(金)·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만주를 장악했던 새외민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이었다.<sup>22)</sup> 하지만 적 혹은 피지배민족인 한인의 제도를 이용하고, 그들을 관료와 군사로 대거 이용하는 것은 새외민족들을 쇠망으로 이끄는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이미 거란의 태조는 漢人과 그 문화·제도 수용으로 국가의 근본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이후 金의 여진인들은 중국·황하 유역을 급속하게 제패한 만큼이나 빠르게 漢人化 되어 민족의 원기 역시 상실했고, 이는 이후 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sup>23)</sup>

이처럼 이나바는 만주·몽고 방면의 새외민족들은 전국시대 이래 漢族과 접촉해 왔고, 경우에 따라 중국의 왕조들까지 공격·장악하는 운동력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이중적인-급속한 발달을 가져다주지만 漢化되어 자신들의 고유성을 잃게 되는- 漢人과 그들의 제도를 사용하여 급속한 성장과 쇠퇴를 반복했음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만주사를 여러 세력의 관계 속에서 사고하는 것은 만주를 세력들의 교차 지점이라고 상정한 것이다. 이처럼 만주를 세력들의 교차점, 바로 지역으로서 사고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부분은 『發達史』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淸代의 만주이다. 목차에서 드러나듯이 淸代 대한 서술은(목차상 '제6장 淸朝의 勃興' 이후로, 삼번의 난 이후이다) 만주 봉금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發達史』에서 이나바가 만주사를 '만몽불기분'으로 대변되는 새외민족들과 漢族 세력의 교차로로서 사고하며 철저히 '만주'라는 지역의 역사로서 보았음을 말해 준다. 즉 만주족의 흥망성쇠가 아닌 만

22)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165 - 166쪽.

23)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150쪽, 167 - 172쪽.

주를 차지한 淸 왕조가 만주라는 지역에 대해 펼친 정책을 통해 淸代의 만주사를 구성한 것이다.

이나바에 따르면 만주 봉금은 北京 천도 이후 세태가 ‘文弱’으로 흐름에 따라 자신들의 발상지를 지켜 國俗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漢人은 물론 몽고인, 조선인을 防壓하여 인삼이나 貂皮, 東珠 등과 같은 천산물을 독점하겠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sup>24)</sup> 하지만 滿洲八旗의 수는 증가했고 물가는 앙등했다. 더군다나 입관 이후 중국문화에 젖어 들어 사치와 낭비벽에 빠진 旗人들은 대량의 토지를 한인에게 專賣했으며, 이로 인해 청을 지탱하던 武力은 약화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옹정제는 과잉된 旗人을 만주로 보내 屯田을 경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건륭제 초반(乾隆9년, 1744)에 실행되었다. 하지만 만주로 간 旗人들은 만주의 토지도 漢人에게 넘겨버리며 만주 봉금은 무의미해졌고, 1842년 南京條約 체결과 태평천국의 난으로 ‘과거의 몽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sup>25)</sup> 만주 봉금이 무너진 이후 만주는 국제사회에 던져졌으며,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는 東淸鐵道 부설권을 획득하고 만주로의 대규모 이민을 계획했지만, 이는 러일전쟁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sup>26)</sup>

이처럼 청대의 만주사를 만주 봉금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이나바는 중국 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새외민족들의 漢化, 중국 한족들의 만주 장악 등을 거론하여 한때 강성했던 새외민족의 약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면 서도 그는 서구 열강의 침략과 겹쳐진 민란이라는 내우외란 속에서 만주를 방기한 청 정부와 漢族들의 무기력함은 물론 러시아로 대변되는 서구 세력의 만주 침입 및 그 저지자로서 일본까지를 만주사의 시야에 담았다.

24)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587 - 602쪽.

25)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620 - 660쪽.

26)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745 - 746쪽.

### Ⅲ. ‘만주민족’과 고유문화 - 1940년 『滿洲國史通論』

『發達史』 서술 이후 야마구치고등상업학교, 육군대학교 등지에서 강의와 각종 저술 활동을 벌이던 이나바는 1922년 이래 1937년까지 조선총독부의 역사편찬사업인 『朝鮮史』 편찬을 위해 줄곧 조선에 머무르며 사업을 총괄하였다. 당시 이나바는 『朝鮮史』 편찬을 위한 사료채방·정리를 비롯하여 각종 실무 사항을 총괄하며 조선의 역사에 대해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1930년대 들어서는 논문 「光海君代の滿鮮關係」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만선사’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sup>27)</sup> 그런데 바로 이 1930년대는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며 일본 학계 내에서도 만주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朝鮮史』 편찬이 거의 끝난 1937년 이나바는 조선사편수회를 퇴직하고, 1938년 5월 滿洲建國大學(이하 ‘건대’)의 개교와 동시에 그곳의 교수로 부임하였다.

건대 교수로서 이나바는 1938년과 1939년 두 차례에 걸쳐 만주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때 강의 원고를 보충·정리하여 1940년 『滿洲國史通論』(이하 ‘通論’)을 출간하였다.<sup>28)</sup> 이 책이 만주국 최고 학부인 건대에서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던 것을 고려할 때 서명의 ‘滿洲國史’는 의미심장하다. 즉 단순한 만주사가 아닌 만주국의 역사로서 ‘만주국사’인 것이다. 이나바는 이 책의 서문에서 『通論』은 과거 자신의 연구를 ‘만주건국대학의 설립 사명’에 비추어 재배치한 것으로 ‘현재 만주국에 대한 필수적인 史觀을 깨닫게 하려는 데에 치중’했다며, 『滿洲國史通論』을 통해 史觀을, 『滿洲發達史』를 통해서는 史才를 각기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sup>29)</sup> 즉 『發達史』와 『通論』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면서도 후자는 만주국 건국, 만주건국대학이라는 시대적 변화·요구가 반영되었다

27) 조선에서 이나바의 연구와 활동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3b, 앞의 논문을 참고.

28) 이나바가 남긴 무수한 저작 가운데 유일하게 『滿洲國史通論』은 『만주사통론』이라는 서명으로 번역(이나바 이와키치 저, 서병국 편역, 2014, 『만주사통론』, 한국학술정보)되어 있다.

29) 稻葉岩吉, 1940, 「序」, 『滿洲國史通論』, 日本評論社.

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通論』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표 2> 『滿洲國史通論』(1940) 목차

前編	1節 史觀と情操/2節 歴史と地理/3節 滿洲國史の時代區分
本編	<b>第1章 民族の原始</b> 1節 肅慎/2節 夫餘族の神話/3節 破走せる東胡/4節 古朝鮮/5節 匈奴/6節 匈奴の左腕的勢力/7節 漢四郡問題/8節 樂浪郡開設と日本
	<b>第2章 民族の成長</b> 1節 夫餘の政治及び法俗/2節 烏丸及び鮮卑/3節 高句麗の國家創成/4節 初期の高句麗國/5節 濊・沃沮・挹婁/6節 高句麗の通吳/7節 漢魏外交と印綬/8節 麗魏關係と日本/9節 鮮卑慕容氏遼西に起る
	<b>第3章 民族の發展(上)</b> 1節 高句麗大いに起る/2節 麗隋戰爭及び日本/3節 渤海國創建
	<b>第4章 民族の發展(中)</b> 1節 契丹の八部統合/2節 契丹人の生活/3節 燕雲の割取/4節 二元體系の政治/5節 遼宋關係と女眞
	<b>第5章 民族の發展(下)</b> 1節 金國興隆す/2節 女眞人の生活/3節 金人の伐宋と漢人
	<b>第6章 民族の新生</b> 1節 蒙古民族/2節 蒙麗關係/3節 元の滿鮮統治/4節 明初の東北經略/5節 日明戰爭の影響
	<b>第7章 民族發展の復現</b> 1節 清太祖建州に起る/2節 薩爾滸山の戰/3節 清の第二次開國/4節 北京遷都/5節 康熙大帝の中原平定/6節 滿洲封禁政策/7節 封禁の破綻
建國前紀	1節 愛琿條約/2節 實邊/3節 日清戰爭(甲午之役)及び直後/4節 蒙古問題/5節 日露戰爭

이전 『發達史』가 명칭대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던 것에 비해 『通論』은 통사로서의 만주사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나바의 이러한 지향을 잘 보여주는 것은 만주사의 시대구분을 모색한 것이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漢族王朝의 경질이 반드시 시대구분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의

30) 한편 『滿洲國史通論』의 발간지가 도쿄임을 볼 때 이 책은 일본인을 위한 만주사에 대한 교양서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왕조들과는 무관하게 만주사만으로의 시대구분을 각각 민족적, 생활적(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시도했다.<sup>31)</sup> 이렇게 만주사만의 시대구분을 시도한 것은 만주국이 건국된 이후 중국사와 별개로 만주사를 인식·서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나바 스스로도 자신이 시도한 몇 가지 시대구분을 『通論』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 왕조들과 분리되는 독자적인 만주사 체계를 지향하면서도 만주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심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주사 고유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은 ‘민족’·‘만주민족’이라는 개념의 설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만주에 근거했던 민족이 여러 갈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나바 역시 과거 『發達史』에서는 개별 민족들을 지칭했다. 하지만 『通論』에서는 만주국 건국 이전 만주국 영토 안에 생존한 대표적인 민족들은 肅慎·夫餘·濊·貊·韓·烏丸·鮮卑·靺鞨·契丹·女眞·韃靼·蒙古 등이라며, 이들 민족과 이들이 세운 왕조를 일괄해 ‘만주민족’이라고 뭉뚱그렸다. 이나바에 따르면 이들은 ‘부분적인 차별’은 있지만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는 ‘동일 민족’으로, 漢族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존재이다.<sup>32)</sup> 이는 ‘만몽불가분’으로 대변되는 역사적 상관성을 넘어 ‘만주민족’을 설정해 漢族 이외에 만주에서 발생·서식했거나 만주를 장악·지배했던 민족들을 하나로 아우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發達史

31)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1-24쪽. 이나바는 만주사만의 시대구분을 세 가지로 시도하였다. 첫 번째는 민족적 관점에서 입각한 것으로 만주민족의 역사를 ①기원전 410년~1800년 ‘만주민족의 일원시대’, ②1800~1840년 ‘滿主漢從시대’, ③1840년~만주국 건국까지 ‘滿漢二元시대’, ④만주국 건국 이후 ‘현대’로 4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생활적 관점에서 입각한 것이다. 생활적 관점은 만주인들이 종사한 경제활동으로, ①기원전 410년~1800년을 ‘天產物 채집시대’, ②1800년~만주국 건국을 ‘농경시대’, ③만주국 건국 이후를 ‘農工시대’로 3분한 형태이며, 이는 민족적 관점에 입각한 시대구분에서 ②와 ③을 하나로 합친 것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①기원전 410년~1689년을 ‘만주족 본위시대’, ②1689년~1800년을 ‘봉금시대’, ③1800년~1890년을 ‘滿漢시대’, ④1890년~만주국 건국까지를 ‘국제시대’, ⑤만주국 건국 이후를 ‘현대’로 구분한 것이다.

32)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0-21쪽. 이나바는 서양학자들이 이들을 퉁구스라고 하지만 ‘퉁구스’라는 용어보다는 ‘만주민족’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 ‘만주’라는 지역의 역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通論』은 ‘만주민족’의 설정, ‘민족’이라는 서술 단위를 중심으로 한 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민족’의 역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즉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국가 ‘만주국’, 때문에 그 건국의 필연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필요가 더욱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건국된 만주국의 변영,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확대를 위해서도 ‘오족협화’가 시대적 화두였던 당시 만주사는 마치 단일한 민족의 흥망성쇠 과정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發達史』와 비교했을 때 『通論』이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만주사의 독자성을 보다 부각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사와 구별되는 만주만의 역사적 독자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은 만주사의 시작을 다루는 이나바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과거 『發達史』에서 만주사의 시작은 漢族과 東胡族 접촉으로, 이는 대략 기원전 3세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通論』은 숙신에서 시작한다. 이나바는 숙신의 거주지는 만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山東 일대까지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중국 학자의 說을 인용하여 중국 고대 문화는 바로 산둥에서 일어났다고까지 서술했다.<sup>33)</sup> 이처럼 ‘만주민족’의 기원을 숙신에서 찾으므로써 만주사의 기원은 漢族, 중국사에 필적할 정도로 소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국문화는 바로 만주민족의 기원인 숙신에게 빛진 것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이나바는 ‘만주민족’이 역사적 기원과 문화의 측면에서 漢族을 능가함을 역사의 시작부터 제시하였다.

이후 이나바는 숙신 이래 부여와 東胡, 동호를 꺾은 흉노와 이에 대한 견제로서 한무제의 위만조선 공략과 한사군의 설치 과정을 ‘만주민족’의 원시로서 설명하였다. 다시 이나바는 400여년 가량을 넘어와 후한 말 부여, 오환, 선비, 고구려, 발해, 거란, 금, 원, 청으로 이어지는 북방 여러 민족들의 경과를 ‘민족(만주민족)’의 ‘성장’·‘발전’이라는 題下에서 서술했다. 하지만 서술의 양상은 ‘만주민족’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하고 보면 과거 『發達史』

33)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5-27쪽. 이나바가 인용한 중국 학자는 傅斯年으로 보인다.

의 서술 방식, 바로 몽고-중국-만주 방면의 민족들의 세력 균형·균열 및 새로운 왕조의 출현·흥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는 비록 『發達史』에서 처럼 ‘만몽불가분’과 같은 선언적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구도 속에서 만주사를 사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강조점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發達史』에서도 금, 청 등에게 모범이 되었다며 중요시한 거란의 흥륭에 대한 『通論』에서의 서술이다.

태조는 이 출정의 처음에 詔를 내려 ‘兩事’의 극복을 맹세하였다. ‘兩事’의 하나는 외몽고의 정복을 말하며, 國의 존재를 굳게 하기 위해서는 阻卜(타타르)의 諸國을 정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단행한 것이다. …‘兩事’의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발해 평정이었다. 태조는 이미 黑龍江 상류를 取하고, 遼東을 위하고, 遼東故城에 東平郡을 두었지만 아직 본국(발해 : 인용자)을 공취하기에 이르지 않았다. …외몽고 원정에서 돌아온 태조는 ‘소위 ‘兩事’의 하나를 이미 마쳤으나 오직 발해는 대대로 원수이나 갚지 못했으니 어찌 편안하겠는가’라며 兵을 일으켰다.<sup>34)</sup>

이에 따르면 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태조가 몽고 방면은 물론 발해 방면을 아울러 토벌했기 때문이다. 즉 만주와 몽고의 세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지를 모두 제압해야 국가의 기틀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나바는 이렇게 만주 방면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몽고 방면을 아울러야 한다는 것은 이후 청대에도 나타난다며 청태종의 링단 칸 토벌에 대해 ‘만주의 발전을 위해 내몽고를 거두어 어루만지며 포용하려 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는 ‘거란이 남긴 모범을 승계한 것’이라고 평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강희제가 준가르를 친정하여 몽고를 변속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다.<sup>35)</sup> 즉 만주에 토대했던 민족-‘만주민족’의 발전을 위한 조건

34)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65 - 166쪽.

35)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335 - 343쪽.

으로 몽고에 대한 지배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과거 이나바가 강조했던 ‘만몽불가분’이라는 구상과 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만몽의 일체화 또는 만주-중국-몽고 등 여러 세력들의 밀접한 관계라는 양의적 의미의 ‘만몽불가분’에서 전자의 의미-바로 만몽의 일체화를 보다 부각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만주민족’의 漢人과 그 문화·제도 이용의 필연성 및 그 이용에 있어 거란의 중요성, 또한 이렇게 만주의 민족들이 중국인과 중국문화를 수용함에 따른 급속한 성장과 그 반대 급부로서 漢化로 인한 쇠퇴이라는 시각 역시 여전했다. 오히려 『通論』에서 이나바는 4세기 모용씨에 이르면 漢文化를 內政의 각 조직으로 받아들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들의 고유 풍속은 80년 만에 사라졌으며,<sup>36)</sup> 만주사의 기원을 소급했던 것만큼이나 ‘만주민족’의 한문화 수용과 그에 따른 급속한 성장·쇠퇴를 드러낸 시기 역시 상향시켰다. 이처럼 漢人과 漢文化의 이중성-‘만주민족’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하지만 그 쇠퇴도 빠르게 하는-에 대한 지적은 이나바의 만주사 연구에 있어 지속·강화되고 있었다.<sup>37)</sup>

이처럼 이나바는 1910년대 이래 시종일관 漢文化의 수용으로 인한 만주 지역 민족들의 성장 및 쇠퇴를 강조했다. 하지만 『通論』에서는 적극적으로 ‘만주민족’만의 고유문화를 상징하고 그 시기를 소급하는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나바는 ‘만주민족’의 기원을 숙신에 두며, 이들이 중국문화의 창조자라며 그 문화적 역량까지도 강조하였다. 이나바는 뒤이어 ‘만주민족’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하며 ‘만주민족’의 고유한 문화에

36)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02쪽.

37) 거란의 경우 ‘향락적인 漢族文化에 굴복’하여, 茶·藥材와 같은 중국문화로부터 연유하는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77-178쪽), 여진 역시 ‘宋을 침략한 이후’ 중국문화와 접촉했는데 ‘漢族의 서적’, ‘고급 衣料’로 대변되는 중국의 사상과 문화는 ‘사치를 조장하여 여진인들 고유의 國粹, 국어를 회복 불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05-207쪽), 淸 역시 ‘北京 천도 이후 100년 만에 사상적으로 피정복자가 되었으며, 중국문화의 동화력으로 인해 고유 정신문화가 파괴되며 쇠퇴의 길로 나아갔다’(稻葉岩吉, 1940, 앞의 책, 344-345쪽)는 것이 ‘만주민족’의 쇠퇴에 대한 이나바의 설명이다.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그 시작은 고구려였다. 이나바는 고구려 28개의 王名은 중국식이 아닌 고구려 고유의 명칭으로, 지명 역시 고구려 고유 명칭을 선호했다며, 이를 ‘고구려의 국어 존중이자 국민의식의 표현’으로서 ‘수준높은 지나 문화의 來襲에 대한 저항’이자 ‘우리 만주 역사의 찬란한 빛’이라고 격찬했다.<sup>38)</sup> 또 발해에 대해서도 舊唐書에 근거하여 이미 독자적인 문자를 창조했으며, 이는 고구려 문화가 이식된 결과로 만주 고대 문자 창조의 선구자라고 평가했다.<sup>39)</sup>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고구려의 국어와 발해의 문자를 통해 고대 ‘만주 민족’의 고유문화를 상찬하는 것은 그 문자의 실체가 확인된 거란, 여진에 대한 서술에서 더욱 풍부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나바는 거란의 태조가 외몽고와 발해를 평정하여 만몽일체를 이룬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나바는 태조의 위대함은 이러한 정복사업만이 아니라 고유의 거란 문자를 제작·공포한 것에도 있다며, 이를 특기하였다. 또 遼의 정치적 발전을 서술함과 아울러 漢文化와 구별되는 거란의 고유문화로서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捺鉢와 頭魚宴과 같은 유목 생활의 전통, 또 거란의 國俗 보존을 주장했던 태조의 처 술을씨에 대해서도 상술하였다.<sup>40)</sup> 이렇듯 ‘만주민족’의 정치적 발전과 나란히 그들 고유의 문자·문화에 대한 강조는 여진(金, 淸)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어졌다. 금나라 초기 구들, 흰옷, 변발과 같은 漢族과 다른 여진인만의 소박한 생활을 언급하고 國字(여진 대소자)의 시행과 이를 사용한 서적의 간행을 서술하는 것이나, 국어를 장려하고 여진어 노래를 부르게 하며 漢姓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과거 유목시대의 의식을 부활시킨 세종을 극찬한 것,<sup>41)</sup> 또 청태종이 내몽고를 경략하고 조선을 정벌하는 와중에도 신하들에게 金史 世宗本紀를 읽힌 일화에 대한 서술은<sup>42)</sup> 바로 ‘만주민

38)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09 - 114쪽.

39)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51쪽.

40)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66쪽, 171 - 178쪽.

41)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02 - 207쪽, 217 - 223쪽.

42)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301 - 307쪽.

족'만의 고유 문화의 존재와 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나바는 '만주민족'만의 문자, 고유한 생활 풍속, 또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漢民族, 漢文化와 별개로 존재했던 '만주민족'의 문화적 독자성 - 國粹를 강조했다.

이처럼 이나바는 『通論』을 통해 '만주민족'을 제시하여 만주와 몽고가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거란과 청의 정복사업에 대한 서술을 통해 정치적 차원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국가 발전의 기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와 함께 漢族과 대립하는 '만주민족'의 기원을 중국민족에 필적할 수 있는 속신에서 찾는 한편 漢文化와는 별개인 '만주민족'만의 고유문화를 강조했다. 즉 '향락적'이고 '사치'스러운 漢文化에 대립하는 '소박'·'순박'하고 '검소'한 '만주민족'의 國粹를 강조하며, 유구한 문화적 독자성을 지닌 문화적 실체로서 '만주민족'을 위치지는 것이다.

#### IV. 끊임없던 '만주'와 일본의 관계

다시 한번 『滿洲發達史』를 '支那, 滿洲, 蒙古, 朝鮮, 露西亞 및 우리 日本人과의 갈등의 일대 記錄'이라 했던 이나바의 정의를 떠올려보자. 여기에는 '만주'로 대변되는 대륙과 더불어 일본이 또 다른 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만주국은 지금 독립제국으로 존재하지만 원래 일본 상하의 국민이 서로 사귀어 친해진 情과 關係가 있'<sup>43)</sup>으며, 특히 만주국 건국과 관련해 '아이훈 조약(1858) 전후로 소급해...일본 국가의 발전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sup>44)</sup>고 밝힌 『滿洲國史通論』에서도 지속·강화되었다. 즉 이나바에게 만주와 일본의 유구한 관계, 만주국의 건국에서 일본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sup>45)</sup>

43) 稻葉岩吉, 1940, 『序』, 앞의 책.

44)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4쪽.

이는 일본사를 정립하기 위해, 또 만주에서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였다. 20세기 초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인들이 주목했던 것은 발해와 일본의 교통이었다. 1910년대 초반 이미 발해의 정치·외교·강역·문화 등을 다루어 박사학위를 취득한 도리야마 키이치(鳥山喜一)는 발해 존속 시기 내내 지속된 발해와 일본의 외교(발해의 ‘조공’)에 주목하여 만주와 일본의 오래된 교섭을 제시했다.<sup>46)</sup> 이렇게 일본에 대한 발해의 조공을 주목한 것은 이나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광개토태왕릉비를 거론하며 日本(倭人)이라는 이름이 만주에 알려진 것은 오래된 과거이고, ‘純粹滿洲에서 成立한 國民과 우리 日本人과의 交聘은 渤海國에서 시작되었다’며 발해와의 교통이 일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는 한편 발해의 멸망으로 200여 년간 지속된 관계가 단절되어 일본의 외교도 퇴영을 거듭했다며 애석해했다.<sup>47)</sup>

이처럼 이나바를 비롯한 일본인 연구자들은 발해와의 교섭을 통해 만주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관련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하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만주와 일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만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만주-중국-몽고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만몽과 조선은 불가분이었다는 시각은 하나의 해결책이었다. 이나바에게 ‘만주’의 역사는 몽고, 중국, 조선 등과의 관계 속에 얽혀 있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나바는 발해와 같이 만주에 근거한 세력만이 아니라 만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대륙의 여러 세력들과 일본과의 관계를 만주와 일본의 관계로 서술한 것이다.

이나바는 만주, 곧 대륙과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국가 형성 문제를

45)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인 연구자들이 만주 지역과 일본의 역사적 교류를 강조했음은 이미 지적되었다(박찬홍, 2014, 앞의 논문, 149 - 159쪽).

46) 발해를 주제로 한 도리야마의 박사학위 논문은 『滿洲發達史』가 발간된 1915년에 『渤海史考』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도리야마의 발해사 연구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6, 『20세기 전반 일본인 학자의 ‘북방사’ 연구 모습 - 도리야마 키이치(鳥山喜一)의 연구 궤적』, 『사회와 역사』 112를 참고.

47)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488 - 491쪽.

바라보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한사군의 설치였다.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여 ‘朝鮮南半의 山川’을 아우르자 ‘海表는 동요하여 비로소 樂浪海中에 있었던 倭人이 漢에 使聘’한다는 것이다. 이나바는 한사군의 설치로 더 이상 반도가 일본을 향하는 대륙의 무력 압박을 막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漢의 강압에 직면하게 된 결과 ‘國民的 觀念의 覺醒을 환기해 肇國의 思想’을 고조시켰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倭人이 漢에 使聘’했다는 서술에서도 드러나듯이 한사군의 설치는 대륙과 일본의 유구한 교섭을 설명할 수 있는 첫 단추이기도 했다. 즉 한사군이라는 ‘대륙 세력의 압박’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에서 국가 건국의 필요가 환기된 데다가 한사군을 통해 만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sup>48)</sup> 이는 한사군이 설치되던 기원전에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그것도 넓은 의미의 만주이자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중국과 직접 교통할 정도의 체제를 갖춘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sup>49)</sup>

이렇게 대륙 여러 세력의 불가분성에 입각해 만주를 대륙으로 확장시켜 일본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일본에서 국가 정비의 시점을 끌어 올린다 해도 만주-대륙과 일본의 관계가 눈에 띄지 않는 한 대륙과 일본의 ‘갈등의 기록’으로서 ‘만주발달사’를 서술하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때문에 『發達史』에서 이나바는 단속적으로 드러나는 만주-대륙과 일본의 접촉을 기술할 뿐이었다. 몽고의 쿠빌라이가 일본을 침략하기 전 보낸 國書를 언급하는 한편 元代의 海賊이나 明代 倭寇를 거론하는 것이다.<sup>50)</sup> 일본의 해적은 元의 주요

48)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471~474쪽. 이러한 의미에서 ‘대륙의 압박’은 ‘일본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나바의 견해였다. 한편 여기서 이나바는 1784년에 志賀島에서 발견된 ‘漢委奴國王’라는 명문이 새겨진 漢印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나바를 비롯한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한일·중일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49) 일본에서 고대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滿洲發達史』에서 제시했던 이나바의 이러한 구상은 1920년대와 30년대를 거치며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3b, 앞의 논문, 340-342쪽; 정상우, 2017, 『일제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的 이해 - 1930년대 중반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107-109쪽을 참고.

50)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494-500쪽.

海道를 공격하여 몽고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元·明代 지속적으로 무역 창구가 줄어든 결과 ‘倭寇라는 일종의 暴風이 일어’난 것이라며, 元·明代의 倭寇를 상인 세력으로서 평가함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만주-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제시했다. 그나마 이나바가 명확한 사료를 가지고 만주-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가 만주 지역에 발을 뺀 것이다. 하지만 이나바는 가토가 만주까지 들어간 이유나 만주에서의 활동 등과 같이 이 사건을 둘러싼 자세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한 채 ‘渤海國 멸망 이래 그 脚先을 滿洲에 들이지 못하던’ 일본인이 대륙으로 진출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sup>51)</sup>

한편 이나바는 조선사편수회에 부임한 이후 『朝鮮史』 편찬을 총괄하는 와중에도 일본과 조선, 중국 등의 대륙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며, 『發達史』에서 제시했던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더욱 정교화했다. 이러한 이나바의 연구들은 그대로 『通論』에서 만주와 일본의 관계로서 제시되었다. 부여와 일본 신화에 나타나는 感生說을 바탕으로 만주와 일본의 관련성은 한사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며,<sup>52)</sup> 한사군의 설치와 함께 진행된 일본의 대륙문화 섭취 및 대륙과의 소통은 3세기 전반 대방군을 매개로 魏와 일본의 사신교환(魏로부터 親魏倭王의 조서와 金印紫綬),<sup>53)</sup> 다시 고구려와의 전쟁을 앞둔 隋와 쇼토쿠 태자 사이의 외교<sup>54)</sup>로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이나바는 ‘日滿關係의 역사와 동아시아 대륙에 있어 일본의 지위는 명백해졌다’고 자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간략하게 언급되었던 쿠빌라이의 일본 초유는 몽고의 탐라 경영과 더불어 伐宋을 위한 조치-송의 배후

51) 稻葉岩吉, 1915, 앞의 책, 504 - 506쪽. 임진왜란 당시 가토 키요마사는 會寧으로부터 豆滿江을 넘어 局子街 부근의 적의 요새를 함락하고 다시 穩城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이나바는 北韓에서 軍政을 실시하던 가토가 그곳의 韓人을 위해 外寇-여진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었다.

52)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32 - 33쪽.

53)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92 - 96쪽.

54)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32 - 133쪽.

세력인 일본에 대한 경계 -로 의미를 부여받았다.<sup>55)</sup> 그런데 만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이나바가 1920년대 이래 발표했던 것들로, 특히 그가 만선사를 체계화하며 제시했던 내용과도 동일했다.<sup>56)</sup> 즉 대륙과 일본의 접촉에 대한 이나바의 논의들은 1910년대 이래 정교화되었지만, 때로는 중일관계로, 때로는 만선사의 체계로서, 『通論』에서는 만주와 일본의 관계로 이름만 바꾸어 가면 시종일관했다.

만주 - 대륙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확인, 이를 통한 동아시아에서 일본사의 위상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은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이다. 과거 그 저 가토 키요마사의 만주 진군을 통해 어떻게든 만주사의 전개에 일본을 끼워 넣으려던 이나바는 이제 벽제관 전투를 주목하며 ‘일본과 명 쌍방이 의식하지 못한 새로운 정세’가 여기서 발생했다고 보았다. 즉 요동의 이성량의 위세와 명망은 벽제관에서 일본군이 이성량의 아들 이여송의 군대를 무찌름으로서 완전히 폭락했고, 이는 만주의 여진인들에게 여진인이 아닌 금나라의 후손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복고적 자각을 일으켜 건국을 추동했다는 것이다.<sup>57)</sup>

이렇듯 이나바는 『通論』을 통해 연구 초기 자신이 제시한 이래 꾸준히 연구해 온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만주와 일본의 관계로 정리하는 한편 아이훈 조약 이후 만철의 설립까지 50여 년을 만주국의 건국전사로서 제시하였다. 아이훈 조약을 만주국 건국전사의 시작점으로 설정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만주 - 대륙에 대한 위협은 러시아에서 연유한다. 이때 청일 · 러일 전쟁은 ‘반도’와 만주를 향한 러시아의 침략을, 일본이 허약한 淸을 대신해, 또 淸의 비협조를 무릅쓰고 막아낸 전쟁으로 평가된다. 특히 러일전쟁은 ‘러시아에게 강탈된 만주의 산하를 일본의 국력과 일본인의 생명을 걸고 淸

55)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49 - 253쪽.

56) 1930년대 이나바는 만선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1920년대 조선의 역사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을 변형 · 부정하였다. 반면 대륙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변형 · 부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정교화되고 시기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3b, 앞의 논문, 342 - 347쪽을 참고.

57)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282 - 284쪽.

國에 돌려주려는 義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淸은 중립을 선포한 채 전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전쟁 이후 만주에서의 제반 시설은 일본에 의해 뚜렷이 발전했다는 것이다.<sup>58)</sup> 즉 러일전쟁은 만주에서 중국의 권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만주의 권익과 만주국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며, 당시 만주국과 몽고의 국경에서 벌어지던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에 대한 전망이었다.

## V. 결어

지금까지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주사 연구를 그의 초기 저술과 마지막 저작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대륙을 가장 오랫동안 지배한 이민족 왕조였던 淸에 대한 관심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이나바는 191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주에 대한 통사인 『滿洲發達史』를 발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만몽불가분’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만주사를 만주만이 아닌 만주-중국-몽고를 축으로 하는 몇 개 세력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만주의 역사를 이러한 세력들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려 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몽고, 만주 등의 해외민족들을 중국 왕조와는 별개인 하나의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서 상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發達史』에서의 만주사는 이들 민족-세력들 간의 관계, 즉 만주라는 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만주와 몽고의 여러 민족들, 漢族 등의 세력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띠는 것이었다. 이처럼 만주의 역사가 세력들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만주를 근거로 생활하며 그 역사를 만들어 온 이들의 역사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發達史』에서의 만주는 여러 세력들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그 역사는 만주라는 지역의 역사로서 서술되었다고 하겠다.

58)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392-393쪽.

한편 수그러들었던 만주사 연구의 열기는 1930년대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을 계기로 재차 고조되었다. 만주사에 대해 꾸준히 글을 발표해 오던 이나바 역시 만주건국대학의 교수로 부임하며 만주사에 대한 새로운 정리를 시도하여, 그가 사망한 1940년 『滿洲國史通論』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이나바는 漢族이 아니면서 만주에서 발생·서식했거나 만주를 장악했던 모든 민족들을 ‘만주민족’으로 포괄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실체로서 ‘만주민족’의 기원, 바로 만주사의 출발점을 숙신으로 끌어 올림으로서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만주’를 漢族과 중국사에 비견할 수 있는 장구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이나바는 ‘만주민족’의 흥망성쇠에 따라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주사 서술을 시도했다. 이는 만주라는 지역의 역사라기 보다는 ‘만주민족’의 역사로서 만주사를 서술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서술은 만주국이 신생국이지만 이미 ‘만주민족’이라는 역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건국의 역사적 근거가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만주사’가 아닌 ‘만주국사’라는 서명에서도 드러나듯이 건대 교수로서 이나바는 ‘만주민족’으로 구성되는 ‘만주국’의 국사로서 만주사를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만주민족’을 설정하고 그 흥망성쇠를 서술했던 만큼 ‘만주민족’의 독자성과 역량을 한층 더 드러내야만 했다. 『通論』에서는 만주사의 기원인 숙신 이래 ‘만주민족’ 고유의 문자·문화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즉 만주국 건국 이후 이나바는 만몽의 민족을 ‘만주민족’이라며 하나로 묶고, 과거 자신이 제시했던 ‘만몽불가분’에서 여러 세력의 균형보다는 만몽의 정치적 일체화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만주민족’의 기원을 漢族의 기원에 필적할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그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하여 중국문화를 그 대립항으로 상대화시켜, 독립된 정치적 실체로서만이 아니라 유구한 문화적 독자성을 지닌 문화적 실체로서의 ‘만주민족’의 역사를 정리하려 했다. 즉 민족적·정치적·역사적·문화적으로 漢民族·漢文化와 구별되는 ‘만주민족’의 역사로서 만주사를 서술하고자 했던 것이다.

민족사로서 만주사를 서술하기 위해 이나바는 ‘만주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는 1930년대 중후반 일본 학계에서의 만주사 연구 경향과도 조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사에 대한 연구가 다시 대거 등장함에 따라 만주사의 귀속을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인 연구자들도 그때까지의 자신들의 만주사 연구를 돌아보며 만주사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하는 한편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섭취하여 만주사 연구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sup>59)</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당시 만주를 비롯한 북방 민족만의 고유한 언어와 생활 습속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sup>60)</sup> 이처럼 당시 일본 학계에서 이야기되었던 북방 민족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발견과 강조 역시 학계를 감싼 만주침략이라는 시대 상황에 규정되는 것임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전개된 만주, 몽고 등지의 역사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나바는 당시 학계의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도 더 나아갔다. 북방 민족들의 언어·문화를 漢族과 漢文化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무시한 채 모두 ‘만주민족’으로 포괄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더군다나 『通論』에서의 만주사 서술은 ‘만주민족’이라는 외피를 벗겨내고 보면 여전히 만주사를 만주와 몽고, 중국, 조선 일대의 여러 세력들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즉 돌궐, 거란, 여진, 몽고 등 漢族이 아니면서 만주에 거처했던 여러 민족들 위에 ‘만주민족’이라는 용어를 덧씌웠을 뿐 여전히 이나바 자신도 개별 민족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중국을 포함한 여러 세력들의 관계 속에서 만주의 역사를 설명하며, 만몽이 정치적으로 일체화되는 국면을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이나바는 지역사로서의 만주사라는 시각을 유지한 채 거기에 ‘만주

59) 당시 일본 학계에서 만주사 관련 논의는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181-192쪽을 참고.

60) 이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6, 앞의 논문을 참고.

민족'이란 용어를 덧씌우고, 이들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사로서의 외피를 두른 채, 이를 '만주국사'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했던 만주국 건국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하고, 만주국 건국 이후 '오족협화'를 내걸었던 제국 일본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만주와 몽고 지역을 아우르며 건국의 기초를 다졌다는 거란과 청의 정복 활동을 상술하며 만몽의 정치적 일체화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19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의 팽창으로부터 만주를 지켜낸 일본을 제시했던 『通論』의 내용이 건대 학생들에게 강의되던 1939년은 몽고와 만주국의 국경 지역에서 몽고군·소련군과 관동군·만주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노몬한 전투)이 벌어지던 때였다.

한편 발해가 존속했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이야기할 수 없는 만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이나바의 논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층 확대·강화되었다. 이나바는 만주사를 대륙 여러 세력들 간의 관계 속으로 밀어 넣은 후 대륙 세력들과 일본의 관계를 만주와의 관계로 치환하면서 일본사의 시작을 상향 조정하였다. 말년의 이나바는 대륙과 일본의 유사점을 더욱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하는 한편 연구 초년 단속적으로 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대륙과 일본의 관계를 보다 정교화하며 대륙에 미친 일본의 영향력-임진왜란의 영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19세기 말 이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만주와 일본의 역사적 관계상 필연적인 사건으로 위치지었다. 즉 여러 세력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만주사'라는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 위로 일본을 등장시킨 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일본이라는 배우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이나바의 만주사 연구는 일본 제국의 대륙침략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일본사의 외연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과정이자, 당시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구축했던, 일본사의 타자로서 '동양' 만들기의 일환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나바에게 일본사가 가졌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일본사 서술을 위한 공간을 만주와

몽고, 중국 등지에서 마련했다. 이는 현재 일본학계의 일본사 연구의 시각과 태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만주민족’과 같은 무리한 개념을 만들어내고, 일본사의 위상을 과대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와 해석을 거두어 내고 만주와 몽고의 민족들은 漢民族과 구별되는 고유의 문자 생활을 영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몽고, 중국은 물론 조선, 러시아, 일본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시각이라면 현재의 학계에서도 부정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내부에 침략성과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 두 가지가 경계를 흐린 채 뒤섞여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通論』이 출간된 1940년, 이나바는 사망했다. 주지하듯이 당시 일본은 전선의 확대에 따라 ‘동아신질서’의 건설을 천명하고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며 미국과의 전쟁에 돌입하고 있었다. 일본의 학계에서도 ‘대동아공영권’의 역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서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연구들로는 포괄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역, 또 전쟁이 한창인 지역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가적으로도 ‘대동아사’의 편찬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자료

-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滿洲歷史地理』 1  
 白鳥庫吉, 1905, 『言語學上より見たる‘アイヌ’人種』, 『白鳥庫吉全集』 2  
 \_\_\_\_\_, 1909, 『滿洲民族の過去』, 『東洋時報』 132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大阪屋號出版部  
 \_\_\_\_\_, 1937, 『予か滿鮮史研究課程』, 『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論叢』  
 \_\_\_\_\_, 1940, 『滿洲國史通論』, 日本評論社

## 연구성과

- 李基白, 1961, 『國史新論』, 泰成社  
 유장근 외, 2009,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 한국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 - 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金容燮, 1966, 『日本・韓國에 있어서 韓國史敍述』, 『歷史學報』 31  
 남상호, 2008, 『‘대동아전쟁’과 『대동아사개설』 편찬』, 『한일관계사연구』 31  
 박찬홍, 2014,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한국고대사연구』 76  
 윤해동, 2015,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 시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  
 이성시, 2011,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지주의 : 그 극복을 위한 과제』, 『韓國古代史研究』 61  
 정상우, 2013a, 『식민지에서의 제국 일본의 역사 편찬 사업 - 조선·대만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60  
 \_\_\_\_\_, 2013b, 『滿鮮史와 日本史의 위상 - 稻葉岩吉의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28  
 \_\_\_\_\_, 2016, 『20세기 전반 일본인 학자의 ‘북방사’ 연구 모습 - 도리아마 키이치(鳥山喜一)의 연구 궤적』, 『사회와 역사』 112  
 \_\_\_\_\_, 2017, 『일제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的 이해 - 1930년대 중반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4  
 塚瀬進, 2011, 『戰前, 戰後におけるマンチュリア史研究の成果と問題點』, 『長野大學紀要』 32 - 3

투고일 : 2019년 04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29일

■ Abstract ■

From Regional to National History :  
Inaba Iwakichi's Study on Manchurian History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Manchuria* (1915) and *The History of  
Manchukuo* (1940)

Jeong, Sang-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Japanese historians' studies of Manchurian history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with a focus Inaba Iwakichi's (稻葉岩吉, 1876 - 1940),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Manchuria* (滿洲發達史, 1915) and his last work, *The History of Manchukuo* (滿洲國史通論, 1940).

Inaba conceived the history of Manchuria premise on the view that Manchuria and Mongolia were closely connected (滿蒙不可分). This signified two assumptions: first, that both Manchuria and Mongolia had fundamental connections leading to integration; and second, that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Manchuria, consideration of the inter - relations between Manchuria, Mongolia and China was essential and closely intertwined. In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Manchuria*, in particular, Inaba suggested that Manchurian history resulted from the dynamics interaction of forces of Manchuria, Mongolia and China. As such, frontier tribes were viewed as separate from Chinese dynasty. In other words, in his early work, Manchuria's history was one of the region's history.

In contrast, in the *The History of Manchukuo*, written after the founding of Manchukuo, Inaba suggested a "Manchurian people" to unite the people of Manchuria and Mongol and organized Manchurian history in like with an ethnic conceptualization "Manchurian people." In other words, he converted Manchurian history from a regional to ethnic-centered national one to this end, Inaba not only took note of the political unity of Manchuria and Mongolia, but also em-

phasized the unique language and culture of the “Manchurian people.” This new emphasis, apart from Japanese historian’s intentions, exposed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founding of the Manchukuo—one that emphasized national and political unity of Manchuria and Mongolia that highlighted the cultural uniqueness of the “Manchurian people.” It additionally served as a response to Japanese imperialism, which had propagandized the “Concordia of Five Races” and was in the midst of fighting on the border with Mongolia at the time.

Key words : Inaba Iwakichi(稻葉岩吉),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Manchuria(滿洲發達史)』, 『The history of Manchukuo(滿洲國史通論)』,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Manchuria and Mongolia(滿蒙不可分), Manchurian people(滿洲民族)